

이창규 개인전 '생성과 소멸 그리고 순환'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16일~9월 12일 개최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오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창규 작가의 20회 개인전을 전시한다. 이창규 작가는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넘어 내면의 세계까지 내포하여 본질까지도 그려려 한다. 우리민족의 오래동안 즐겨 활용한 오방색을 주조색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창규 작가의 표현기법은 1970~80년대엔 구상화를, 1990년대엔 반추상화를,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추상화 작업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회화기법과 디자인 기법이 융합된 표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 작품의 주제는 대부분 삶



이창규 작가 생명 그리고 순환

의 이야기나 깨달음을 속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그림의 소재는 한국의 전통문화재

의 정수인 전통건축의 공결과 사찰의 기둥머리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 부분을 단순화나 추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 내적 체험이 반영된 추상화는 "여시아관" 즉 나의 주관 방법으로 보고 느낀 어떤 심상을 표현해 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 눈과 마음으로 보고 느낀 것을 표현 하는 것이다. 이창규작가는 "그림이나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미완성의 연속이지만 이 미완성 그 자체가 인생이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창규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명예 교수로써 원광대학교 회화과 1회 졸업생이며, 미술대학 학장, 미술관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미국 U.C.L.A 미술대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이 2024년도 후백제 문화유산 연구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주계고성(朱溪古城) 시굴 조사' 개토제를 지난 8일 무주읍 대치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무주군, 주계고성 시굴 조사 개토제 개최

시굴 조사 이유·과정 등 공유·무사고기원 위해 추진

무주군이 2024년도 후백제 문화유산 연구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주계고성(朱溪古城) 시굴 조사(이하 시굴 조사)' 개토제를 8일 무주읍 대치리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토제는 시굴 조사 이유와 과정 등을 공유하고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차산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이곳 주계고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치소성(治所城)으로, 과거 무주 행정의 중심이었다"며 "이번 시굴 조사가 주계고성에

담긴 정체성과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신라와 백제의 점적 문화 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 주계고성 시굴조사"는 주계고성의 축조 시기와 기법, 구조 형태 등을 확인해 향후 보존·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고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고고문화유산 연구원이 조사·용역(5.27.~8.28.)을 맡아 1,600㎡에 대한 성곽시설 등을 파악하고 원형축조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체성부 및 주변 평탄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유구 실측조사 및 도면(현황배치도, 유구평면도, 임·단면도 등)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마한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학교성료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여름 방학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지역아동센터와 춘포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 금마민들레지역아동센터, 8일 여산지역아동센터 등 박물관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6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한(韓) 문화 중심지 익산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마한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채', 금·은보다 소중한 여진 '구슬'과 관련된 유물을 탐구하고 새모양토기 만들기, 굽은옥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을 진행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별밤 익산 시티투어



별밤 익산 여행

'백제의 밤을 거닐다' 익산 야간 시티투어 운영

백제왕도 익산시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줄 특별한 야간 여행을 선보인다. 시는 야간 관광 상품으로 '별밤 익산 시티투어'와 '별밤 익산 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밤 익산 시티투어'는 익산 곳곳의 야간 경관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다. 익산역에서 시작해 익산근대역사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웅포곰개나루 등을 방문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다.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063-859-5810)로 여행을 원하는 일정 3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별밤 익산 여행'은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상품이다. 전주 한

옥마을에서 출발해 원불교총부, 솔리문화금고, 익산근대역사관, 미륵사지로 이어진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된다.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063-287-7788)로 여행을 원하는 일정 3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두 관광 상품의 최소 출발 인원은 15명이며 1인당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민과 청소년, 경로자, 장애인, 군인 등에게는 1,000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식사는 모두 중앙시장에서 진행되며 1인당 5,000원이 지급되는 쿠폰으로 생동이분식, 우리분식, 매일분식, 정순순대, 상상노리터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맛 특색' 특강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9월 4~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식진흥원 이음홀에서 전주음식 토론포럼 '전주 맛 특색'을 진행한다. 먼저 9월 4일에는 △성명용 대표의 '대한민국 원조 전주비빔밥, 한국집' △최대원 실장의 '삼백 그릇의 정성을 담은 삼백집' △강지웅 대표의 '4대를 이어가는 PNB'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어 9월 5일에는 △장태영 대표의 '대한민국 최고령 다방, 삼양다방' △전주대 김경미 교수의 '요정, 한성식, 카페로 흐른 공간의 기억, 행원' △이철수 사장의 '대한민국 전통 술의 자존심, 전주 이강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포럼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요일별로 30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장은성 기자

두베, 고지은 작가 결과 보고전 개최

민주 소양 고택서 20~30일 진행

문화의혹체험 두베(대표 이문희)는 고지은 작가(사진)의 결과 보고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30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소양고택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레지던시 입주기간 영감을 받은 전통적인 고택의 공간과 소양면의 풍광이 어우러지는 장소적 특수성을 재해석해 생명의 순환과 유기적인 연결을 전시 준비 중에 탐구했으며, 작품에서 원과 선을 통해 생명의 순환과 유기적 연결을 시각화했다. 또한 작품 속 구(원)를 생성과 소멸, 출발과 끝, 연결과 변화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선(능선)은 생명력의 흐름과 유기적 연결을 나타냈



으며, 중첩된 간격 사이의 연결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 주요한 소재로 사용된 광목천은 자연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며, 한지는 전통적인 소재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의미한다. 고지은 작가는 "처음 고택을 접했을 때는 강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받았으나, 입주기간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유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문희 대표는 "두베는 물, 사람, 시간의 생명력이 흐르는 공간으로 이번 전시는 이 공간에서 생명의 순환과 유기적 연결을 탐구하며, 작가 다른 불완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063-230-7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